

근대5종·역도, 韓 역대 최고 성적 선봉 선다

2012 런던 올림픽서 金 13개
1988 서울 올림픽 메달 33개
6일까지 금 11·은 8·동 7 수확

근대5종 전용태·성승민 기대
역도서 박혜정·김수현 등 주목
탁구 여자 단체전 준결승 진출

2024 파리 올림픽이 8일(한국 시간)로 폐막을 나흘 앞둔 가운데 한국 선수단의 선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일까지 금메달 11개와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 등 26개의 메달을 수확하면서 역대 최다 금메달, 역대 최다 메달 기록 경신을 노리고 있다.

한국 선수단은 2012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 13개, 1988 서울 올림픽에서 메달 총 33개(금 12개·은 10개·동 11개)를 수확한 것이 역대 최고 성적이다. 금메달 2개 또는 메달 7개를 추가하면 타이 기록, 금메달 3개 또는 메달 8개를 추가하면 새로운 기록을 쓴다.

메달 사냥이 가장 유력한 종목은 근대5종이다. 근대5종에는 전용태(광주광역시청)와 서창완(국군체육부대), 김선우(경기도청), 성승민(한국체대) 등 네 명의 선수가 도전장을 냈다.

근대5종은 펜싱과 승마, 수영, 레이저



한국 근대5종 국가대표팀 서창완(왼쪽부터)과 김선우, 성승민, 전용태가 지난 6월28일 경북 문경 국군체육부대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근대5종 미디어데이에서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뉴시스

런(사격+육상) 등 다섯 가지를 한 번에 소화해야 하는 고강도 종목이다. 한국 선수단은 네 명 모두 남·여 세계 랭킹 10위 이내에 진입한 강자들이다.

먼저 전용태와 서창완이 8일 오후 6시 프랑스 생상드니 아레나 파리 노르에서 열리는 근대5종 남자 펜싱 랭킹 라운드 경쟁에 돌입하고, 김선우와 성승민이 같은 날 오후 9시30분 여자 펜싱 랭킹 라운

드를 시작한다.

펜싱 랭킹 라운드는 참가 선수 36명 전원이 풀리그 방식으로 치르게 된다. 에페 방식으로 35명을 모두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첫날 일정에서 기선을 제압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펜싱 랭킹 라운드에 이어 열리는 준결승은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으로 장소를 옮긴 뒤 2개 조로 나뉘어 진행된다. 승마와

펜싱 보너스 라운드, 수영(자유형 200m), 레이저 런을 하루에 소화해야 한다.

남자 준결승 A조는 오는 9일 오후 8시, B조는 오는 10일 오전 12시 경기를 시작하고 여자 준결승 A조는 같은 날 오후 4시30분, B조는 오후 8시30분에 레이스에 돌입한다. 남자 결승은 오는 11일 오전 12시30분, 여자 결승은 같은 날 오후 6시에 이어진다.

2020 도쿄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차지하며 한국 근대5종 사상 첫 메달리스트가 된 전용태는 이번 대회에서 이를 뛰어넘는 성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만약 서창완과 김선우, 성승민 중 메달리스트가 탄생한다면 첫 멀티 메달도 넘볼 수 있다.

역도에서도 메달 수확이 기대된다. 역도에는 박혜정(고양특례시청)과 김수현(부산광역시체육회), 박주호(고양특례시청), 유동주(진안군청), 장연학(아산시청) 등 다섯 명이 출전한다.

2020 도쿄 올림픽에서 아쉽게 동메달을 놓쳤던 김수현은 오는 10일 오후 11시 프랑스 파리 아레나 파리 슈드에서 열리는 역도 여자 81kg에서 3년 전 설움을 털어내겠다는 각오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차지하는 등 제2의 장미란으로 불리는 박혜정은 이번 대회 역도 최고의 기대주다. 박혜정은 오는 11일 오후 6시30분 역도 여자 +81kg에 출전한다.

탁구에서도 메달이 눈앞에 왔다. 전지희(미래에셋증권)와 이은혜, 신유빈(이상 대한항공)은 8일 오후 3시 프랑스 파리 아레나 파리 슈드에서 열리는 탁구 여자 단체전 준결승에서 중국 또는 대만을 만난다. 이들은 앞서 16강에서 브라질을 3-1로 꺾은 뒤 8강에서 스웨덴을 3-0으로 완파하며 준결승에 안착했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신·구 조화 통한 세대교체 성공 확인 MZ세대 중심 한국체육 기틀 마련”



파리올림픽을 참관한지도 어느새 14일째, 지칠법도 하다. 한여름 8월의 띄어날 날씨와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한국과는 달리 여름에서 가을 사이의 제법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는 파리의 한국인들은 연일 싱글빙글이다. 나 역시도 힘이 솟구친다.

최소 인원 참가와 역대 최악의 전력이라는 평가속에서 지난 2주간 대한민국 선수들의 선전을 응원하면서 승리의 기쁨에 취하기도 했고, 패배의 아쉬움을 실감하는 등 희노애락을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저 감사할 뿐이다.

우리 선수단은 6일(현지시간) 오후까지 금메달 11개,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 등 총 26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1948년도 14회 런던올림픽 참가 이후 5번째(2008년 베이징·2012년 런던 13개, 1988년 서울·1992년 바르셀로나 12개)로 많은 금메달을 획득하고 있다. 앞으로의 선전 여부에 따라 역대 최고 성적의 새로운 역사까지도 기대될 기세다.

신·구 조화를 통한 성공적인 세대교체가 좋은 성적의 비결이라 생각한다. 특히 MZ세대가 이끌어가는 한국체육의 기틀을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펜싱 남자 사브르에서는 도쿄올림픽의 주역이었던 어펜저스의 김정

환, 김준호 선수가 은퇴를 하고 구본길, 오상욱이 막내 박상원, 도경동 선수를 이끌고 단체전 3연패를 달성했다.

펜싱 여자 사브르에서도 도쿄올림픽 막내였던 윤지수가 만년노리서 올림픽에 첫 출전한 최세빈, 전하영, 전은혜 선수를 이끌고 세계랭킹 1위 프랑스를 격파하는 등 사상 최고 성적인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양궁에서는 김우진 선수가 3번째 올림픽 출전에서 후배들을 이끌고 단체전 3연패를 달성함과 동시에 대회 3관왕에 올랐고, 올림픽 사상 최고 성적을 기록한 사격은 금 3, 은 3개를 획득한 선수들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선수들로 완벽한 세대교체에 성공했다.

여기서 착안, 이번 대회를 통해 전담체육의 연계 육성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숙제 또한 다시금 고민하게 됐다.

초·중·고·대·실업으로 이어지는 연계 육성은 전남체육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선수단처럼 언제든 세대교체가 자연스럽게 가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기 때문이다.

파리에서 100년만에 개최된 이번 대회도 5일 남았다.

메달 획득이 유력시되는 근대5종 서창완 등 우리지역 선수들이 출전하는 남은 기간에도 대한민국 선수들의 선전을 열심히 응원하겠다.

분명한 것은, 좋은 성적을 거양하기까지는 신·구 조화를 통한 선배 선수들의 노하우와 후배 선수들의 패기와 열정이 더해져야 한다는 점이다. 세상의 이치를 파리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일깨워주고 있다.

광주FC, 전주성 무너뜨리고 파이널A권 오른다

내일 전북과 K리그1 26R 맞대결 원정 1무 1패... 징크스 탈출 절실



다시 연승 행진을 출발한 광주FC가 전주성 원정을 떠난다. 전북현대모터스를 상대로 원정에서는 승리가 한차례도 없지만 극단적인 열세를 극복하고 시즌 첫 3연승을 달리겠다는 각오다.

광주는 오는 9일 오후 7시30분 전북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전북과 하나은행 K리그1 2024 26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휴식기를 가진 후 첫 실전에 나서는 광주 선수단이다.

광주는 최근 패조의 흐름을 조정했다. 24라운드에서 대구FC, 25라운드에서 수원FC에 모두 1-0 무실점 승리로 연승을 달렸고, 코리아컵 8강 성남FC(3-2 승)와 맞대결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3연승이다.

좋은 흐름 속에 상위권과 격차도 차근차근 줄여나가고 있다. 현재 11승 1무 13패(승점 34)로 7위에 위치해 있지만 4위 울산HDFC(12승 6무 7패·승점 42)를 8점 차로 바짝 따라붙었다.

광주는 휴식기 사이 선문대와 연습경기를 통해 실전 감각을 조율했다. 하승운과 정지훈, 박대준이 득점포를 가동했고 이건희와 빅틀이 도움을 올리며 3-0 대승을 거뒀다. 공수 양면에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공격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지만 최근 측면에서 맹활약을 펼쳤던 가브리엘과 아사니의 존재도 주목된다. 가브리엘과 아사니는 최근 스리백과 포백을 오가는 이



광주FC가 9일 오후 7시30분 전북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전북현대모터스와 하나은행 K리그1 2024 26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광주FC 가브리엘(가운데)이 지난달 27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수원FC와 25라운드 홈경기에서 선제골 겸 결승골을 터트린 뒤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광주FC 제공

정호 감독의 유기적인 전술 속에 끊임없는 공수 전환으로 팀에 헌신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는 핵심 자원인 정호연이 경고 누적으로 출장 정지를 받으면서 중원에서 공백을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이강현과 오후성 등 많은 출전 시간을 얻지 못한 자원들이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전북은 이번 여름 이적시장에서 대대적인 보강을 단행했다. 이승우와 한국영, 안드리고, 연제운, 전진우, 김태현, 유제호, 김하준 등 팀 전반적으로 탄탄한 보강을

이루며 김두현 감독에게 힘을 실었다. 군복무를 마치고 김천상무FC에서 복귀한 김진규와 김준홍의 존재감도 무시할 수 없다.

광주는 전북을 상대로 통산 2승 5무 18패, 원정에서는 1무 11패로 극도로 약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시즌에도 1승 3패로 열세였고, 올해는 2전 전패를 기록하고 있다.

광주 선수단으로는 전주성 징크스 격파가 절실한 이번 맞대결이다.

한규빈 기자